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역기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4:27)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평강"은 영어로 peace이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샬롬(Shalom)"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신자들을 보면 부러웠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항상 평강이 넘치는 것인가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하며, 이 기간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다양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내면의 평온함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고 일부는 도망치고 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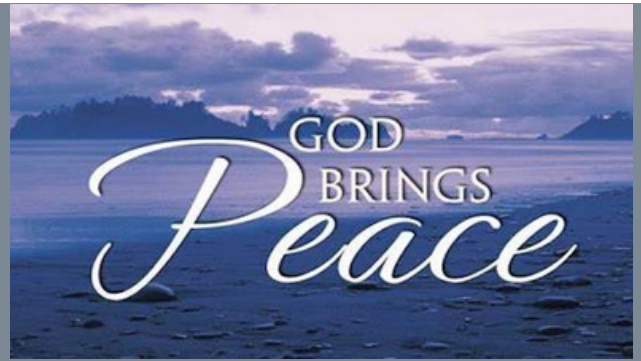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위험한 세상으로 모험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선물로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고난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고난을 견디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강과 괴로움이 공존하는 이중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선교와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비뚤어진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태를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곧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나 안식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고 해서 삶이 쉬운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수치와 거절을 당하셨다면 그분의 백성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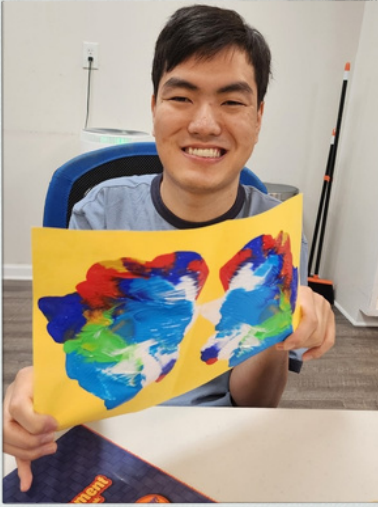
또한 우리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중단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더 나쁜 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을 위해 선교와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DAY PROGRAM 두드림



민용이 잘했어요



초코도넛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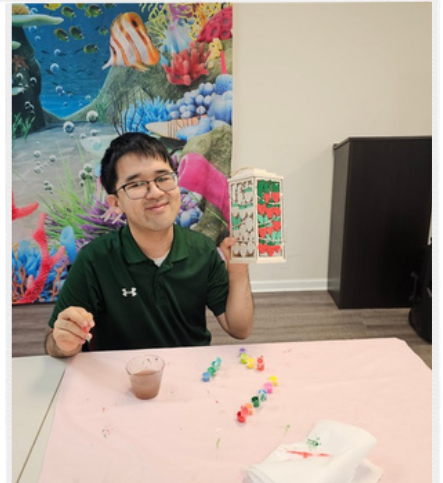
도자기 만들기



진우 잘했어요



더울땀 빙수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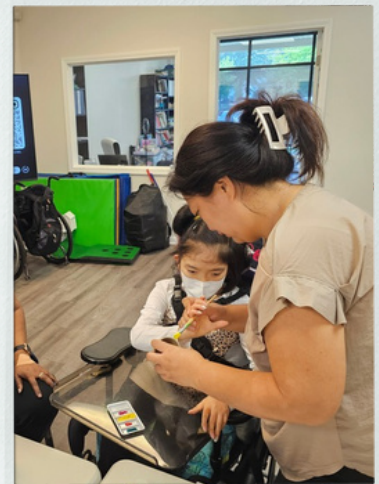
크래프트 시간



하나씩 정확하게



수줍은 진우



정연이가 마무리

DAY PROGRAM 두드림



음악에 맞춰 섹섹



북치는 나래씨



순진이의 숨겨진 실력



모두가 함께하는 퍼팅



끝까지 올리세요



맛있게 부려줘요



탁월한 연주



공 차볼까



슛이 정확하네

꿈글학교 가을학기



공 전달하기



다함께 산책



크래프트 시간



한글이 좋아요



지우가 만들 차례



고리 돌리기



이렇게 하는거란다

꿈글학교 가을학기



북치는 호프



쿠킹 마무리는 시식으로



하프연주



봉사자와 한마음으로



도자기 만들기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퍼팅연습 시작하자

CONTRIBUTION



8월 후원자님

주영광교회 (\$100)
이동욱, 이희정 (\$50)
노영우, 노형숙 (\$50)
박영숙, 유재원 (\$50)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곽공옥, 서귀애 (\$1000)
섬기는교회 (\$200)
이예선 (\$300)
Sally 성희 김 (\$2000)
[The Good Management]
Moya Cooper (\$50)
김성락, 정진이 (\$50)
구자은 (\$100)
최경숙 (\$600)
채정림 (\$60)
장진원 (\$100)
Mankay Inc (\$100)
장응선 (\$100)
애틀란타한국교육원 (\$1000)

점심후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ONE MINISTRY CENTER



MAIN MISSIONS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꿈글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Director: 장진원목사님

Open

Tue-Fri: 9 am-5 pm

Sat: 9 am-2:30 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facebook.com/1000770455929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